

Earning Serendipity

- by Glenn Llopis



불경기, 경제공황, 경기침체...
 낯선 단어들이 아닐 것이다.
 미국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으면서 은행은 물론 보험,
 금융 회사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연간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불경기에 한인사회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무역 적자는 년간 늘어나기만
 한다. 이런 경제 공황속에서
 탈출하는 경영론을 소개한다.

‘Earning Serendipity’의 저자 Glenn Llopis는 불경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불경기를 통해 더 많은 기회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전한다.
 2008년 9월 25일,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의 Claire Trevor Theatre에서 ‘Earning Serendipity’ 출판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의 메인 스폰서로 서게 된 골프가이드는 골퍼들을 위한 불경기 탈피 경영론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속을 깊게 파고들어 모든 상황가운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영론을 설명했다. 저자 Glenn Llopis는 쿠바 출신 미국인으로 UCLA 교육을 받았으며 Gallo Wine Company와 Sunkist사에 사상 최연소 수석 경영자로 일했었던 기업가이다. 또한 30살이던 어린 나이에 10억달러 규모의 Norway Seafood Co.에서 부회장으로 일해 온 비즈니스맨이다. 더불어, The New York Times, The Los Angeles Times, Larry King Live, Good Morning America, The Financial Times, Advertising Age, Brandweek, MSNBC, Yahoo! News와 같은 세계적 언론업체들의 각광을 받은 여러 기업 투기에 큰 몫을 하는 경영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Earning Serendipity’는 기업들의 불행과 행운은 임의적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창출하고 예방해야 되는 점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또한 불경기를 통한 더 많은 행운을 창출하고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한다.

Earning Serendipity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공황을 비판하며 마냥 다가올 기회만을 기다리지 않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행운을 찾아내는 경영론인 것이다.

Earning Serendipity는 한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라 생각된다. 골프는 멘탈 게임이다.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로 Earning Serendipity같은 경영이 필요하다. 벤 호겐이 말했듯이 헤쳐드, 경쟁자들을 신경쓰지 말고 자신만의 게임을 즐길때 최고의 스코어를 낼 수 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한것이다. ‘Earning Serendipity’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 많은 골퍼들에게 돌파구를 제공해주는 구심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www.earningserendipity.com으로 가능하다.

골프가이드 Joshua Chun



그는 설명한다:
 ‘불행은 우리 모두를 쫓아온다 하지만 행운은 불행보다 더 신속히 우리를 찾아온다.’ 또한 ‘행운은 단순한 기회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드문 능력에서 나온다’ 라고 언급한다. Earning Serendipity는 Glenn의 수많은 연구, 언론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경영방법을 설명하며 그 기업들의 행운이나 성공들은 단순한 기회에서 온 것이 아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돌파구를 찾음으로 창출된 것이라 설명한다.